

간호계 소식

본회, 간호원 면허증 갱신신청업무에 만전

개정요령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간호원면허증 갱신접수를 받고 있는 본회는 전국의 22,000여 간호원(수천명의 해외체재간호원포함)을 대상으로 국내는 각 소속지부를 통해, 해외는 본회가 직접 담당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쇄도하고 있는 갱신신청자의 왕래로 어느때보다도 붐비는 가운데 본회는 밤늦게까지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신청자의 통계를 알 수 없어 후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국내외에 체신 간호원 여러분께 이 소식을 재삼 전하며 행여나 동료간에라도 갱신에 임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본 회도에 오른

가칭 “간호원의 집” 건립위원회

본회는 작년부터 구상해온 가칭 “간호원의 집” 건립사업을 두고 여러면으로 연구해 온 결과 최근 본 회도에 들어가 임원선정을 하고 매지물색을 하는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노인간호를 발판으로 하는, 열우리나라가 요구하는 노년층을 위한 뜻깊은 사업으로 우리회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환영을 받고 있다. 홍신영이사를 건립위원장으로 한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2월12일, 가칭 “간호원의 집” 건립위원회 광경〉

부위원장 : 김복음, 이성덕

회 계 : 유성순, 방용자

서 기 : 최보배, 이승희

분과위원장 : 건욱, 전순덕

모금, 김춘자

고 문 : 김동규, 유순환

위 원 : 강윤희, 김길순, 김금면, 김남희, 김영희, 김복음, 김순자, 진아덕, 김영매, 김경선, 박소흥, 방용자, 소숙정, 이귀향, 안혜숙, 안홍자, 양은숙, 양인실, 유성순, 윤수복, 전순덕; 이성덕, 이성옥, 이승희, 이영복, 이은지, 전산초, 조병숙, 최문자, 최보배, 최월남, 김순봉

건축분과위원 : 최상순, 박소흥, 이성옥, 홍승길, 홍정혜, 전영자

모금분과위원 : 조상문, 김소인, 양막지, 이광옥, 전춘영, 홍경자

의료전문지

「醫學新報」 7면을 보라

의료전문지의 하나인 醫學新報社에서는 2월들어 그 편집방향을 변경, 7면에 看護版을 신설하였다.

1월29일 본회의 회장단, 간호계대표를 초대한 좌담회석상에서 의학박사인 慈善社사장은, 의료보전사업이 의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간호사업에 큰 비중을 둘 것을 언급, 간호관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본회는 이러한 취지에 호응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어느때 보다도 이 지면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간호관을 통해 우리의 소리가 올바르게 의료계를 비롯 사회에 전달되어 간호사업의 참뜻과 자체를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과지

자매마을을 위한 경노잔치



지난 1월 12일 서울시지부에서는 자매마을인 서대문구 홍은2동 동사무실에서 주민 2,800여명 중 60세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7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敬老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이성덕지부장을 비롯하여 김영메이사, 홍승길이사, 정봉진이사의 상무, 업무부장, 시청직원 4명을 포함한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김두현 동회장 사회로 마을주민의 환영속에 경노잔치는 뜻있게 진행됐다.

본지부에서 이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달한 기증품은,

내복 124벌(남자65벌, 여자59벌), 양말 120켤레, 사탕 120봉지, 빵 70봉지이며, 마을 주민에게는 의류 410점, 구급처치장(캐비넷), 구급약품(의약품21종) 도서 74권등을 기증하였다.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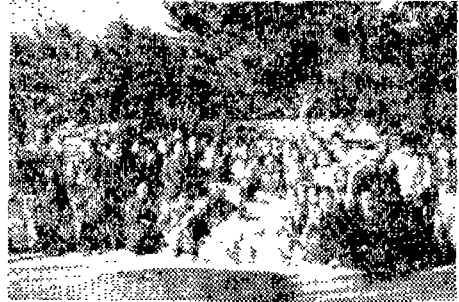


지난 1월4일 서울시지부에서는 그동안 임상간호업무분과위원회의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병원간호업무지침서”와 “수술실 간호지침서”가 출판되어 간호계 40여명의 인사들 모신 가운데 5층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부산지부

새마을 사업



지난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김금련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정화양로원을 위문하여 구호품을 전달하였다.

현금 33,000원, 생필품 80점, 약품 6,700원상당 빵과자 10,000원상당 의류 30점등

협조해 준 병원과 학교는 다음과 같다.

성본도병원, 천제회병원, 춘해병원, 일신병원, 대학병원, 복음병원, 시립병원, 빈천병원, 복음간호학교, 베리볼간호학교, 적십자병원, 위생병원등.

전북지부

전북지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3개간호학교 73년도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 1인씩을 각각 표창키로하였다.

개정간호학교 73년 졸업생중 1인에게 지부장의 상장과 상품수여하다.

전남지부

1월15일, 양은숙지부장을 비롯한 이사및 상무는 풍향동에 있는 정신병자수용소인 「사랑의집」을 방문, 떡과 옷등 위문품을 전달하다.

1월21일, 전남의대 간호학교 졸업식에 회분증정하다.

군진지부

1월 11일, 군진의학협회장에 정호영준장이 이

입되고 김병국준장이 취임되다.

1월31, 조산원 및 간호원 면허갱신 신청에 조산원 29명, 간호원 594명 서류접수하다.

국군간호학교생도 제8기 신입생 최종합격자 94명 발표

남자간호장교 후보생 모집완료

캘리포니아 한국간호원회

바다건너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한국간호원에서는 유분자회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회원이 모두 뜻을 모아 일해 나가고 있다.

최근엔 처음 실시하는 RN시험강좌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면허갱신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업조하며 오는 3월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활발한 활동으로 조금씩 모아지는 기금으로 엔제인가는 토스안젤레스에 간호협회 소유의 빌딩도 세울 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호뜻한 소식이다.

<40여명이 참석한 RN시험을 위한 강좌>



우리민족의 민간의교관이 되겠다는

서독백림간호원회

이번엔 교회건축비 보내와

백만기회장의 높은 뜻을 살려 회원모두가 단결하는 서독백림간호원회에서선 이번에도 마음 뿌듯한 소식이 전해왔다.

익명의 회원의 뜻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회건축사업비로 회원의 귀한 돈을 모아 1437,45DM (198,368원)을 보내왔으며 한국의 산을 푸른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큰 뜻을 두고 모금액 1400.30DM (193,241원)을 함께 보내왔다.

모금액은 김용기장노임을 통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혼란받고 있는 자매부락청년 세사람을 기점으로 잘처리해달 라는 뜻도 덧붙여왔다.

다음은 교회건축비와 모금액 모금명세서이다.

서백림간호원회 백금리교회건축비 모금명세

이름	금액 (DM)	이름	금액 (DM)	이름	금액 (DM)
두명	500	노순혜	20	김정옥	5
백만기	100	정명현	10	하영삼	100
박정순	100	김윤서	10	권희연	100
윤승희	50	한국간호원기숙사예배헌금	81.45	소영희	40
이용자	50	우춘희	5	안정순	30
박정희	50	송준호	5	김윤자	15
송준호	50	홍영숙	3	이종희	10
정정자	20	최영자	3	김주옥	10
최순환	20	이희지	5	합	1497.45
윤인옥	20	정현옥	5		
김우희	20				

서백림간호원회 모금액 모금명세(잡나무·밭나무)

이름	금액 (DM)	이름	금액 (DM)	이름	금액 (DM)
백만기	200	김정복	5	김영자	5
이용자	100	이진옥	5	정향자	5
윤승희	100	우춘희	5	정현옥	5
박정희	100	우춘호	5	조연자	5
송준호	50	조영자	2	신사순	3
박정순	50	홍영숙	2	이경문	3
정정자	30	김정순	4	하영삼	50
최순환	20	우혜순	5	권희연	100
김우희	20	이희지	5	소영희	10
노순혜	20	심재순	3	김주옥	10
윤인옥	20	윤종일	5	안정순	20
한국간호원기숙사예배헌금	241.30	김영숙	5	합	1400.30
		진정애	5		
		영철애	5		

간호원 국가시험

수석합격자는 국군간호학교의 이혜숙양과 원주간호전문학교의 신명자양이 동시차지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국가시험중 지난 1월 11일 제1차로 제14회 간호원국가시험이 고려대학교(중암동)에서 실시되므로서 전국의 간호계 학교를 졸업한 3,260명의 간호학생은 제가꿈 인솔 선생의 지시와 안내를 받아가며 시험에 응시하였다. 합격률은 91.6%로 272명이 불합격했다.

해외소식

“보다 영양있는 음식으로 더 건강한 세계를”

1974년 4월7일 세계보건의 날을 위한
WHO 서태평양 지역의 회장
Dr. Francisco J. Dy의 「메시지」요약

1974년 4월7일 세계보건의 날의 주제를 “보다 영양있는 음식으로 더 건강한 세계를”라고 Dr. Dy는 만들고 다음 두가지를 강조했다.

1. 효과적인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강조.
2. 직업적인 훈련과 정부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것, 즉 정책적으로 영양관리를 하도록 계획되어져야하고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영양관리조절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간호학생은 간호계의 장래의 기둥이다”

CNR은 1975년 싱가포르에서 간호학생회의 구상

세계각국협회에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간호학생을 조직구성하고 있는데 어떤곳은 지역적인 지부회원 또는 준회원등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제 봤든, 간호학생들은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는 사실은 의심

할 수 없다. 장래의 기둥이 될 이 간호학생들을 각국협회에서는 적극지도 편달과 후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ICN은 서구간호학생조직위원회를 1973년 9월30~10월5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었다.

CNR은 좀더 간호학생에게 여러가지 광범한 문제점을 한자리에 앉아 제기하면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1975년에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있게 될 것이다.

캐나다에 RN으로 신청하는 간호원들에게 보내는 Information

Manitoba에서 RN으로 일하려면 다음 1, 2, 3, 4번을 준비해야 한다.

GN은 1·2번만 완비하면 GN으로 간주한다.

1. 정식간호학교를 졸업한자(문교부인가 있는 학교)
2. 국가고시 합격자
3. 캐나다 국가고시 합격자(캐나다 RN시험)
4. 캐나다에 와서 임상실습에 인정을 받은 자.

캐나다 RN시험은 1년 3회개공(1, 6, 8월)

1, 2번의 자격이 있는 자는 캐나다에서 GN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일자리를 찾기위해 다음주소로 연락이 가능하다.

Manitoba Hospital Association

377 Colony St. Winnipeg, Manitoba, Canada.

학생회

제2회 동기보건지도 및 봉사

제16기 대한간호학생회 제2회 동기보건지도가 경기도 용인군 이풍면 천리 샘골마을에서 1월26일부터 5일만에 걸쳐 행하여 졌다. 가톨릭의대 간호학과와 한운부 선생을 지도교수로 서울에 있는 학교대표인 임원 11명과 충남의대 간호학과, 춘해간호전문학교, 국군간호학교, 수피아간호전문학교의 대표가.같이한 이번 보건지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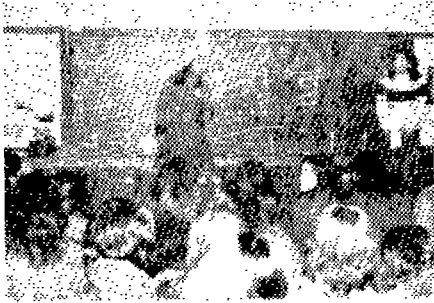
작년과 같이 간호학생들의 특수성을 살려 순수한 보건지도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와 성의있는 강의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활동에서는 아등반, 청년반, 처녀반 부녀반 등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 구강위생, 기생충 예방, 전염병예방, 개인위생, 응급처치를 Slide와 궤도를 사용한 시청각 교재로서 재미있게 강의를 가졌고 틈틈히 동작, 굴짓기, 노래자랑등

오락시간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갖기도 하였다.

치러반에서는 일행이신 연세대 오형석교수님의 성교육에 대한 강연회가 인기를 끌었고, 마지막날엔 축구, 피구 줄다리기등의 중목을 갖고 체육회를 열기도 하였다.

조그마한 마을의 동기보건지도 및 봉사활동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보람된 마음으로 돌아왔다.



전국의 간호계학교 수석졸업자 명단

〈금년도 졸업생을 낸 전국의 간호계 학교中 문외예 응답해준 학교에 한함〉

- 서울의대간호학과 이재원(경북여고졸)
- 연세간호대학 이영숙(여수석고졸)
- 전주예수간호학교 장현자(전주), 함선희(군산)
- 대구동산간호학교 서정희(신명여), 이은복(대구)
- 대전간호학교 김계선(금산여), 오문숙(강경)
- 개정간호학교 황천순(이리원광), 최을순(마산제일)
- 마산간호전문학교 임춘자(부산메디사여)
- 고려위대간호학과 고영희(검정)
- 충남의대간호학과 오경옥(대전여고졸)
- 카톨릭의대간호학과 박영숙(수도여고졸)
- 성물문간호전문학교 정영희(목포여고졸)
- 안동간호전문학교 하일초(안동간호고등)
- 강릉간호전문학교 박이자(강릉간호고등)
- 경남간호전문학교 전형순, 정민자
- 김천간호전문학교 제영희(문경여)

• 회원동정

- 박정호회원 귀국: 서울대학병원 간호과장인 박정호씨는 작년 8월 부터 병원 간호행정연구차 말레이시아의 말라야대학교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의 유학을 마치고 2월 10일 귀국하다.
 - 의료인단 파월: 정부방침에 의해 2월 20일 파월된 의료인단에, 간호계에선 본회 간호업무분과위원인 김병숙씨의 6명이 함께 떠났으며, 1년후 귀국할 예정이라 한다.
 - 노봉실회원, 미국시카고에 있는 회원으로 면허갱신에 드는 비용과 함께 100\$을 보내오다.
 - 최영희회원, 1월4일 도미하다.
- 이대간호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본회 출판위원으로 다년간 활약해온 최영희씨는 1년을 목표로 유학길에 들어간 것이다.

- 김희희회원, 1월8일 미국으로 이민하다.
- 국립의료원간호학교에 적을 둔 김희희씨는 본회섭외공보위원으로도 활약이 큰 분이다.
- 설태호회원, 부산간호학교를 졸업한 회원으로 2월 2일미국으로 이민하다.
- 북경유회원, 경북의대 부속간호학교를 졸업한 회원으로 2월6일 미국으로 이민하다.
- 김영자회원, 정주간호학교에 적을 둔 회원으로 1월 첫달을 낳았다.

부산지부, 새마을운동 단합대회 개최

부산지부에서는 대통령의 1·8진급조치에 비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새마을운동단합대회를 1월 29일 부산대학병원에서 개최하였다.



■ 해외체재 회원의 郵便物 返送이 많다

본회에서는 매달 많은 우편물을 해외체재회원에게 보내고 있다. 특히 금번 면허갱신을 위한 안내장을 1,200여통(한통200원상당) 우송하였는데 그 중 40여통이 반송되었다. 해외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주소변경을 알릴 것이며, 외국체재의 공신력을 믿기 이전에 본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서로의 불편과 낭비를 사전에 막아야 하겠다.